

#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전주서 개최

5~7일 팔복예술공장 일원서 포럼·전시·공연·워크숍·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전국지역문화재단의 연대와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백옥선)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7일까지 3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최하고,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재)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시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연대와 협력의 문화재단, 지역문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의 개막일에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비전 선포식’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구성원 1인1선언’, 지역문화 우수사례로 선정된 24개 재단에 대한 시상식 및 전시관 라운딩과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둘째 날에는 CEO포럼과 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 우수사례 발표 및 초청공연과 종사자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김홍 웹툰 작가의 토크콘서트와 문화현장투어도 준비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전국 문화재단 관계자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반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박람회를 주관한 (사)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는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문화재단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7일까지 3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 연합체로, 서울에 본부가 있다. 현재 전국에는 기초단위 119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광역단위 문화재단 17곳을 포함하면 7월 현재 총 136개 지역문화재단에 속한 약 1만 명의 임직원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옥선 회장은 “2023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

람회’를 전주에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불어 문화담론의 공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백제의 가치를 새기다’ 세계유산 축전 개최

7-23일 익산 미륵사지·백제왕궁서 진행

4대 고도 익산의 세계문화유산을 무대로 공연과 체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가 개최된다.

‘2023 세계유산 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가 익산의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을 비롯한 공주, 부여 세계유산에서 ‘백제의 가치를 새기다’ 주제로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익산시와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연,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3주간의 행사는 ‘백제 가치 전승의 날 선포식’을 비롯해 △년버릴 퍼포먼스 △렉처콘서트 △별빛마실 △RPG이머시브 △무형유산 연희마당 △스텝프투어 등 풍성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15일 저녁 7시반 미륵사지에서



개최되는 가치전승의 날 선포식은 백제의 가치를 담은 은조왕의 ‘황금계’ 행렬(60명)이 무대로 입성하여 선포식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선포식은 의식행사와 가치의 날 퍼포먼스, 주제공연,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제공연은 이번 축전 공식 주제곡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윤일상 작곡가가 작곡한 ‘서쪽이야기’를 곡악인 하운주씨가 노래하며, 축하공연은 부여충남국악단의 지역연계교류 공연이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또한 마지막 주말인 22일과 23일 저녁 9시 미륵사지에서 진행되는 년버릴 퍼포먼스는 ‘부활의 빛, 익산백제와 무왕’을 주제로 펼쳐지는 무언장작곡공연으로, 미디어아트와 300대의 드론쇼가 어울어져 백제왕도 익산에서의 ‘용성의 빛’이 연출될 예정이다.

익산만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미디어아트와 드론쇼로 방문객들에게 축전의 풍성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22일, 23일 미륵사지에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야간 체험 투어 프로그램 별빛마실과 다채로운 야간 포토존 및 경관조명을 통해 백제가 지닌 가치를 재해석하고 빛으로 새겨내, 시민들에게 여름밤 미륵사지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세계유산 축전을 백제왕도 익산의 가치와 품격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세계유산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왕도 익산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립무용단 제45회 정기공연

‘시크릿(SECRET)- 붉디 붉은 꽃’ 14일 익산예술의전당서

익산시립무용단이 미륵사지 9층 석탑에 얽힌 비밀을 풀어가는 ‘시크릿(SECRET)- 붉디 붉은 꽃’ 공연을 선보인다.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익산시립무용단의 제45회 정기공연으로, 익산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창작하여 무용장르의 특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익산시립무용단의 대표 콘텐츠이자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크릿(SECRET)- 붉디 붉은 꽃’은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무용단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과 스타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했다.

공연은 익산시와 익산시립무용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패밀리십(familyship) 공연의 하나로 제작되었으며, 무용 장르의 특수성을 강조한 에너지 넘치는 무대 구성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추는 등 무용민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색다른 연출을 볼 수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와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한 작품연출 기법으로 제작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번 작품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80분 정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원테이크(one take)’ 형식으로 전개된다.

또한 자매도시인 경주의 시립신라고취대공연단과 행복한 시작으로 첫 문을 여는 웅장하고 힘 있는 공연을 펼치게 된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하나, 티켓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6일 오후 2시부터 사전 예약(1인 4매)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859-3254)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몽글패밀리’ SNS 리뷰단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몽글패밀리’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줄 몽글패밀리 SNS 리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월 재단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도민의 문화 감수성 함양과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몽글패밀리’ SNS 리뷰단 1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가족(2~4명 기준) 단위로 SNS 리뷰 작성이 가능한 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jct.or.kr) 공지사항에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7~8월 중 ‘몽글패밀리’를 무료 관람한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생성한 후기를 남기면 된다.

특히 참여한 가족 리뷰단에게는 기념품과 활동증명서 등을 제공하며, 9월부터는 매일 5팀씩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몽글패밀리’는 서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 댄스컬이며, 6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4회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장수군,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 오페라 갈라콘서트 공연

장수군이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 초청공연인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5일 오후 7시 30분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의 반주에 불소이 국립오페라극장 주역 성악가들이 전하는 벨리니, 베르디 등 수준 높은 클래식 오페라 공연이 펼쳐진다.

이에 더해 한국 동요, 가요 등 익숙한 음악도 함께 프로그램에 포함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

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번암지역아동센터 과람새 합창단이 특별 출연할 예정으로 아이들에게는 추억과 경험을 선사하는 무대뿐만 아니라 문화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무대를 완성해 최고의 감동을 전할 계획이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